

1831년 『군정성책(軍丁成冊)』을 통해 본  
전라좌수영의 군정과 군관\*  
-순천부 사례를 중심으로-

김경옥\*\*

- I. 머리말
- II. 전라좌수영의 군정편제와 『군정성책』 자료 소개
- III. 전라좌수영 소속 순천부의 군정과 군관 편성
- IV. 맺음말

국문요약

전라도 순천에 수군절도사가 파견된 것은 15세기이다. 당시 왜구 침입으로 인한 피해가 순천해역에서 속출하였기 때문이다. 15세기 왜구는 두 갈래 바닷길을 따라 조선 해역으로 몰려왔다. 하나는 대마도(對馬島)에서 거제도(巨濟島)를 경유하여 고초도(孤草島)에 이르는 바닷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본 오도(五島)에서 손죽도(損竹島)·선산도(仙山島)를 경유하여 가리포(현 완도)로 들어왔다. 이런 까닭에 전라도는 조선 명종 10년(1555)에 을묘왜변을 비롯하여, 선조 20년(1587)에 정해왜변, 그리고 임진왜란에 이어 정유재란까지 장기간 전란에서 벗

\* 이 논문은 2009년(정부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07). 이 글은 호남사학회와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공동 주최 학술대회 “해역의 세계 : 교역과 항해술, 그리고 해양방어”(2015. 10. 2)에서 발표하였던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HK교수.

이날 수 없었다.

전라도의 해양방어체계가 대폭적으로 개편된 것은 조선 숙종 7년(1681)이다. 이 때 전라도 수군은 수영(水營)을 중심으로 좌도와 우도로 편제되고, 그 예하에 첨사진(僉使鎭)·만호진(萬戶鎭)·별장진(別將鎭)이 배치되었다. 17세기 전라좌수영은 군산의 위도(嵎島)에서부터 여수의 오동포(梧桐浦)에 이르기까지 5관(순천·낙안·보성·광양·홍양) 5포(방답진·사도진·여도진·발포진·녹도진)를 관할하였다. 그 후 19세기에 전라좌수영 관할로 장흥의 회령포진과 순천의 고돌산진이 복설되면서 6관 7포를 관장하였다.

1831년에 작성된 『군정성책』에는 전라좌수영 소속 순천부 4개 면(여수면·도리면·해촌면·별량면)의 군정과 군관 명단이 수록되어있다. 분석 결과 전라좌수영 소속 순천부의 군정은 정병(正兵)·수군(水軍)·보미(保米)·병장(兵匠)·봉군(烽軍)·수용(需用)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연령은 25~57세였다. 이 가운데 정병의 평균 나이는 44세, 수군은 42세였다. 조선 후기 전라좌수영 소속 군정 수는 큰 변동 없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순천부 여수면 군정수의 경우, 1759년에 중앙정부가 제작한 『여지도서』(1759)에 총 136명이 수록된 반면, 1831년에 순천부에서 작성한 『군정성책』에는 144명이 등재되어 대동소이하였다. 그 후 고종 31년(1894) 갑오경장 때 조선의 모든 군사 업무가 중앙 행정 부서인 군무아문(軍務衙門)으로 일원화되면서 전라좌수영을 비롯하여 예하 수군진이 모두 혁파되었다.

주제어 : 전라좌수영, 순천부, 여수면, 군정성책, 군정, 군관, 수군.

## I. 머리말

전라도 순천에 수군절도사가 파견된 것은 조선 성종 10년(1479)이다. 당시 순천부 인근 해역에서 왜구 침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였기 때 문이다.<sup>1)</sup> 이 시기의 왜구는 물질적·경제적으로 궁핍하였던 대마도와 규

1) 정성일, 「전라좌수영과 남해방어」,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그리고 거북선』, 경인 문화사, 2011, 28-29쪽.

슈지방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두 갈래 바닷길을 따라 조선 해역으로 물러왔다. 하나는 대마도에서 거제도를 경유하여 고초도에 이르는 바닷길 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본 오도에서 손죽도·선산도를 경유하여 가리포(현 완도)로 들어왔다.<sup>2)</sup> 왜구들은 한반도에 이르는 바닷길에 익숙할 즈음에 조선 해역을 침략하였다. 즉 조선 명종 10년(1555)에 해남 달랑진(達梁津)으로 침입하여 영암·강진·장흥 일대를 점령한 을묘왜변이 일어났고, 선조 20년(1587)에 청산도를 습격하여 정해왜변이 일어났으며, 연이어 임진왜란이 발생한 것이다.<sup>3)</sup>

임진왜란 이후 조선정부는 해양방어체계를 재편하였다. 즉 조선 인조는 중앙을 오군영(五軍營)으로 편성하고, 지방에 진관제(鎭管制)를 도입하여 도읍(都邑)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특히 지방군의 경우 병수사(兵水使)·첨절제사(僉節制使)·영장(營將)을 지휘관으로 확립하고, 예하 소속 군사는 종전의 정병(正兵)에서 거주지 중심의 인보(隣保)로 편성하여 거읍(巨邑)·거진(巨鎭) 중심의 집중 방어 체계를 구축하였다.<sup>4)</sup> 또 전라도의 수군편제가 재편된 것은 조선 숙종 7년(1681)이다. 군산의 위도에서부터 여수의 오동포에 이르기까지 연해변을 이어주는 수군진보가 배치되었다. 즉 수영을 중심으로 좌도와 우도로 구분하고, 그 예하에 첨사진·만호진·별장진이 파견되었다. 이러한 수군편제는 19세기 말엽에 군무아문으로 일원화되면서 전라좌수영을 비롯하여 예하 수군진이 모두 혁파되었다.<sup>5)</sup>

지금까지 전라좌수영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임진왜란과 이충무공을 다루면서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정도였다. 최근 들어 해양사 관련 연구논문의 소재가 전라좌수영 소속 수군진의 설치와 운영,<sup>6)</sup> 이순신 막하 군관

2) 『선조실록』 권124, 선조 33년 4월 4일 정축 ; 『선조실록』 권137, 선조 34년 5월 8일 을사.

3) 『명종실록』 권18, 명종 10년 5월 30일 계해 ; 『선조실록』 권21, 선조 20년 11월 정해.

4) 김경옥, 『조선후기 도서연구』, 해안, 2004, 183-184쪽.

5) 『湖南鎭誌』 奎1218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湖南營誌』 奎12189,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6) 전라좌수영 산하 수군진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가 주목된다. 변동명, 「朝鮮時代 突山島 防踏鎭의 설치와 그 구조」, 『韓國史學報』 27, 고려사학회, 2007 ; 변동명, 「조선시대의 突山鎭과 古突山鎭」, 『歷史學報』 198, 역사학회, 2008; 변

의 역할,<sup>7)</sup> 거북선 건조와 선재목 조달,<sup>8)</sup> 수군 전법(戰法)과 조련(操練),<sup>9)</sup> 전라좌수영 복원을 위한 발굴성과와 공간변화 등으로 보다 구체화되면서 전라좌수영이 재조명되고 있다.<sup>1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좌수영 소속 군정과 군관에 대해서는 연구영역의 확장이 요구된다.

본고는 19세기 전라좌수영 소속 순천부의 군정과 군관에 관한 것이다.<sup>11)</sup> 첫째, 전라좌수영의 군정 편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순천부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둘째, 최근에 발굴된 『군정성책』(1831)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 셋째, 『군정성책』을 통해 본 전라좌수영 소속 순천부 군정의 면별·신역별·연령별 분포와 추이, 군관의 편성과 분정 등 그 추이를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전라좌수영 소속 순천부 군정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명, 『朝鮮時期 麗水の 石堡와 石(堡)倉』, 『역사학연구』 33, 호남사학회, 2008; 송은일,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의 將軍島城 축조과정 및 배경과 李良將軍」, 『역사학연구』 54, 호남사학회, 201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수군진 조사』 2(전라좌수영 편), 2014.

- 7) 김덕진,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군관의 출신과 역할」, 『해양문화연구』 1, 전남대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08.
- 8) 변동명, 「1592년 전라좌수영의 거북선 건조」, 『해양문화연구』 4, 전남대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0 ; 송은일,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의 軍船 材木 관리와 조달」, 『해양문화연구』 4, 전남대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0.
- 9) 장원주·최형국, 「18세기末 전라도 水軍戰法 變化의 특성-전라우수영 『戰陣圖帖』과 전라좌수영 『水操笏』을 중심으로」, 『武道研究所誌』 22-1, 용인대 무도연구소, 2011 ; 정성일, 「전라우수영과 남해방어」,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그리고 거북선』, 경인문화사, 2011 ; 신윤호, 「임진왜란 직후 해상방위와 통제영-居營日記를 중심으로」, 『해양문화연구』 10, 전남대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4 ; 오미나, 「조선후반기의 통제영 수군조련도 연구-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 병풍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81, 2014.
- 10) 순천대박물관·여수시, 『全羅左水營城址』, 2002 ;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여수시, 『여수전라좌수영성지』, 2011 ; 오정훈, 「전라 좌수영의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2002 ; 김행범·우승완·이석배, 「근대기 전라좌수영성의 공간변화에 관한 연구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52,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12.
- 11) 본고의 연구대상인 軍丁은 조선시대 양인에게 부과되었던 身役으로서 軍役 담당자를 지칭한다.

## II. 전라좌수영의 군정편제와 『군정성책』 자료 소개

### 1. 전라좌수영의 군정편제 변화

조선시대의 지방군은 물을 지키는 육수군(陸水軍)과 바다를 지키는 기선군(機船軍)으로 편성되었다. 이 가운데 기선군이 곧 수군에 해당한다. 15세기 전라도의 군정은 기선군 8,674명과 초공(梢工) 72명으로 구성되었다.<sup>12)</sup> 이 가운데 좌도 기선군이 5,243명, 우도 기선군이 3,431명으로, 좌수영 수군이 약 60.4%를 점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가하면 당시 전라도에는 중선(中船) 87척이 배정되었는데, 이 가운데 55척(63.2%)이 좌도에 배치되었고, 맹선(孟船) 14척이 모두 좌도에만 파견되었으며, 별선(別船) 40척 가운데 14척(35%)이 역시 좌도에 주둔하였다.<sup>13)</sup> 이로써 보건대 조선전기 전라도의 수군과 전선은 우수영보다 좌수영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왜구로 인한 피해가 좌수영 일원에서 발생한 결과였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지방군제는 속오군으로 재편되었다. 속오군은 감영·병영·수영을 중심으로 지역 방위를 전담하고, 동시에 왜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방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예컨대 선조 26년(1593)에 충청·전라·경상도를 총괄하는 삼도수군통제영을 전라좌수영에 병설하고, 이순신으로 하여금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를 겸직하도록 하였다. 또 조선 전기 이래로 전라좌수영에서 관할하였던 마도진(강진)·어란진(해남)·회령포진(장흥) 등을 강진 가리포진으로 이속하고, 또 홍양의 방답진을 주진(主鎭)으로 하였으며, 그 예하에 사도진·여도진·녹도진·발포진 등 만호진을 배치하였다. 그 결과 종래 순천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전라좌수영의 수군편제가 홍양(현 고흥)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수군편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왜구 출몰은 줄어들지 않았다. 선조 33년(1600)에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김억추(金億秋)가 ‘완도→청산도→고금도→신지도→조약도로 연결되는 바닷길에 왜구가 출몰하고 있

12)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기선군.

13) 정성일, 위의 논문, 30쪽.

으니, 이곳의 해방체제를 강화하십시오.’라고 장계(狀啓)를 올렸다. 또 이듬해인 선조 34년(1601)에 전라도관찰사 이홍로(李弘老)가 ‘오도의 왜적이 손죽도·선산도 등을 거쳐 곧장 가리포로 돌진해 올 경우 고금도진이 대응하기에 부족하니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십시오.’<sup>14)</sup>라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왜구가 한반도에 이르는 바닷길에 익숙해진 결과였다.

17세기에 전라도 수군편제가 재편되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조선 인조 때 중앙을 오군영으로 편성하고, 지방에 진관제를 도입하여 방위체제를 개편한 것이다. 그리하여 성곽이 인가(人家)의 울타리처럼 도읍(都邑)을 방어하고, 강화도를 중심으로 좌로는 황해도까지, 우로는 경기·공청(현 충청)·전라·경상도에 이르기까지 도서 연안에 마치 물고기의 비늘처럼 수군진보가 연이어 배치되었다.<sup>15)</sup> 두 번째 변화는 조선 숙종 때 서남해역의 해방체제가 대폭적으로 재정비되었다. 이 시기의 중앙관료들은 완도해역의 왜구 침입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논의의 쟁점은 강진의 고금도와 청산도에 수군진을 신설하는 문제였다. 당시 병조판서 민유중(閔維重)이 이르기를, ‘고금도는 땅이 크니 첨사를 배치하고, 청산도는 조금 작으니 만호를 파견하되, 각 고을마다 전선(戰船) 2척씩을 배치하고, 능로군(能櫓軍)과 사포수(射砲手)는 모두 해당 섬 주민으로 충당한다면 수군 배정으로 인한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sup>16)</sup>라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고금도 덕동에 첨사가 파견되어 조약도(현 약산도)·평일도·생일도 등지를 관할하였고,<sup>17)</sup> 고금도보다 외양에 위치한 청산도에 별장이 주둔하였다.<sup>18)</sup> 그 결과 17세기 말엽 전라좌수영은 5관(순천·낙안·보성·광양·홍양) 5포(방담진·사도진·여도진·발포진·녹도진)를 관장하였다.

19세기 중엽 전라좌수영의 군정은 입방군(入防軍) 3,210명, 휴번군(休

14) 『선조실록』 권137, 선조 34년 5월 8일 을사.

15) 『인조실록』 권19, 인조 6년 8월 23일 신해.

16) 『숙종실록』 권11, 숙종 7년 1월 3일 정사.

17) 김경옥, 「고금도의 역사 문화적 배경」, 『도서문화』 13,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5, 10-19쪽.

18) 靑山嶺의 연혁에 대해서는 이해준·김경옥, 「청산도의 역사 문화적 배경」, 『도서문화』 9,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1, 8-15쪽에 정리되어 있다.

番軍) 1,645명, 수용군(需用軍) 800명, 예하 수군진의 입방군 7,200명, 기병대 군병 1,058명이 주둔하였다. 또 전선(戰船) 4척, 해골선(海鶻船) 1척, 방선(防船) 4척, 사후선(伺候船) 11척이 배치되었다. 이 시기 전라좌수영은 6관(순천·광양·보성·낙안·홍양·장흥) 7진(방답진·사도진·여도진·발포진·녹도진·고돌산진·회령포진)을 관할하였다.<sup>19)</sup>

## 2. 『군정성책』의 체제와 내용

본고의 분석 대상인 『군정성책』은 전남 여주시 전라좌수영박물관 소장 성책고문서다. 이 자료는 필사본으로, 순천부에서 각 면리별로 군정 정보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sup>20)</sup> 문서의 내용은 한 면에 10행씩 기재되어 있고, 1행에 1명씩 군정의 개인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1행마다 자수(字數)는 부정확하다. 또 해당 군정이 여러 명의 대리인을 교체한 경우도 개인정보를 별지에 작성하여 해당 군정의 이름 하단에 덧붙여 있었다.

이 자료의 표제명은 낙장으로 인해 알 수 없다. 다만 내표지 첫 줄에 「도광십일년사월일군정성책(道光十一年四月日軍丁成冊)」이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자료가 1831년(도광 11)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첫 째 줄에 순천부 소속 면(面)이 3칸 내려쓰기를 하여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줄에 2칸 내려쓰기를 하여 자연촌<sup>21)</sup>이 명시되어 있다. 그 다음부터 해당 마을별·군정별 인적사항이 1행에 1명씩 기록되어 있다. 군정의 개인정보는 ①신역(身役), ②이름, ③연령, ④부친의 성명, ⑤대리인 등이다. 특히 대리인의 경우도 개인 인적 사항이 군정의 이름 하단에 세필로 기재되어 있다. 수록 내용은 먼저 「대(代)」라고 표기한

19) 『湖南營誌』 「全羅左水營營誌及事例」, 奎12189, 1895.

20) 대체로 조선시대 문서 작성 양식을 보면, 문서 중간마다 중간 통계가 정리되어 있고, 문서 맨 마지막에 종합 통계가 기재되어 있다. 본고의 분석 자료인 『군정성책』의 경우도 순천부의 면별·리별 군정 통계가 세분되어 정리되어 정리되어 있었다. 다만 문서 작성 시 기록자의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오류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군정 등록 인원별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리별 통계에 준하여 서술하였다.

21) 『군정성책』(1831)에 등록되어 있는 자연촌은 里·洞·村·間·驛·浦·島의 규모를 의미한다(『호구총수』, 1789).

다음, 대리인의 이름, 나이, 대리인 부친의 성명 등이 부기되어 있다. 이러한 양식으로 1개의 자연촌 군정 명단이 끝나면, 해당 마을 군정에 대해 「이상○명내(已上○名內)」라고 기재한 다음 총 인원과 신역별 군정 수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자연촌 소속 군정 명단이 끝나면, 그 다음 줄에 동일 면(面) 소속 또 다른 자연촌의 군정 명단이 새로 시작된다. 그리고 해당 문서의 맨 마지막에 면별 군정 통계가 「도 이상○명내(都已上○名內)」라 하여 총 합계와 신역별 군정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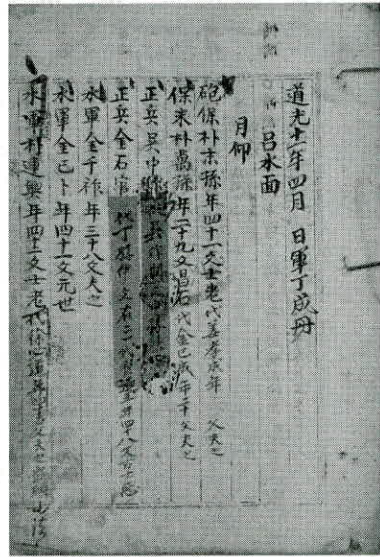


그림1. 『군정성책』(여수면 내표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줄부터 면별 군관(軍官)과 집사(執事)에 대한 분정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다만 면별 군관의 분정 내용은 모두 동일하지 않았다. 일례로 순천부 여수면의 경우 「부군관질(府軍官秩)」만 표기되어 있는 반면, 별량면의 경우 「진영대변군관질(鎭營待變軍官秩)」, 「부군관질(府軍官秩)」, 「부집사질(府執事秩)」, 「진영집사질(鎭營執事秩)」, 「선무군관질(選武軍官秩)」, 「면당질(面堂秩)」 등 다양한 종류의 군관이 분정되어 있었다. 또 군관과 집사 명단위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현 전하는 전라좌수영 『군정성책』(1831)은 순천부의 4개 면, 즉 여수면(呂水面), 도리면(道里面), 해촌면(海村面), 별량면(別良面)의 군정과 군관에 대한 정보이다. 4개 면의 수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전라좌수영 소속 순천부 『군정성책』(1831)의 수록 내용

面別	內表紙	里 / 村	軍丁(名)	軍官(名/代錢)	비고 (분량)
呂水面	道光十一年四月日軍丁成冊	月仰, 東山, 內洞, 自內, 五萬, 道元, 新基, 石倉, 龍基	명단(114) 리별(144) 면별(144)	府軍官秩(106)	-문서 일부 낙장, 17면



道里面	道光十一年四月日道里面軍丁成冊	蟹峙, 五林, 紅斗, 芻洞, 仙巖, 召羅, 良栗, 橋項, 蘆田	명단(114) 리별(113) 면별(140)	鎭營待變軍官秩(11) 鎭營執事秩(7) 府軍官秩(5) 選武軍官秩(2) 將官秩(1) 面堂秩(19) / 32兩 9錢 7分	-보존 양호, 19면
海村面	道光十一年四月日海村面軍丁成冊	馬山, 豊德, 大安, 小安, 連香, 栗山, 臥龍, 大召, 檢末, 德巖, 新月, 新垵, 照禮, 旺地, 雪南, 內洞, 朱舍, 蓮花山所	명단(152) 리별(146) 면별(137)	鎭營待變秩(4) 府執事秩(2) 選武軍官秩(5) 校生秩(9) 面堂秩(32) / 54兩 8分	-보존양호, 22면
別良面	道光十一年四月日別良面軍丁成冊	牛山, 內洞, 東巖, 古長, 松川, 場基, 盤谷, 石峴, 鳳德, 長鶴, 仙友, 松亭, 竹田, 大閱, 新川, 龍雲, 月下, 松內, 新村, 三亭, 五也, 水洞, 長山, 下林, 上林, 眞木, 鶴棲, 梧洞, 水德	명단(393) 리별(269) 면별(350)	鎭營待變軍官秩(10) 府軍官秩(8) 府執事秩(29) 鎭營執事秩(3) 選武軍官秩(6) 面堂秩(76) / 126兩 2錢	-面堂秩 낙, 49면

위의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라좌수영 소속 순천부 4개 면의 군정수가 확인된다.<sup>22)</sup>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위의 『군정성책』의 작성 시기를 전후로 하여 전라좌수영 소속 순천부의 면리편제와 군정의 추이다. 먼저 18세기 중앙정부 주도로 간행한 『여지도서』(1759)에서 순천부의 면리편제를 살펴보면, 소안면(蘇安面)·장평면(長平面)·동해촌면(東海村面)·용두면(龍頭面)·울촌면(栗村面)·소라포면(召羅浦面)·삼일포면(三日浦面)·여수면(麗水面)·서상이사면(西上伊沙面)·송광면(松廣面)·쌍암면(雙巖面)·주암면(住巖面)·남도리면(南道里面)·하이사면(下伊沙面)·별량면(別良面)·북서면(北西面)·월등면(月登面)·황전면(黃田面) 등 총 18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3)</sup> 또 19세기 중엽에 제작된 『대동지지』 순천부의 행정편제를 살펴보면, 동해촌면이 해촌면으로, 북서면이 서면으로, 서상이사면이 상사면으로, 하이사면이 하사면으로, 남도리면이 도리면으로 각각 지명이 변동되었을 뿐 순천부의 면리편제는 18개 면으로 역시 동일하다.<sup>24)</sup> 마지막으로 『군정성책』(1831)의 경우 순천부의 여수면·도

22) 여수시 좌수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군정성책은 본래 통권으로 작성된 것을 후대 사람들에 의해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면별로 겉표지가 별도로 현전하지 않고, 나일론 줄로 제책되어 있다.

23) 『여지도서』 「순천부」

24) 19세기 중엽에 제작된 『대동지지』 순천부의 행정편제는 해촌, 소안, 장평, 도리, 상사, 하사, 황전, 쌍암, 월등, 별량, 용두, 소라포, 삼일포, 여수, 울촌, 서면, 주암,

리면·해촌면<sup>25)</sup>·별량면 등 4개 면의 군정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순천부 소속 18개 면(面) 가운데 왜 4개 면의 군정 정보만 전승되고 있는지 궁금하다.<sup>26)</sup> 더욱이 순천부 소속 자연촌(리/촌)의 군정 분정에 있어서도 극히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일례로 18세기에 간행된 『호구총수』 순천부 여수면의 면리편제를 보면, ‘상도(上道) 26리, 하도(下道) 17리, 서문내외로(西門內外路) 21리’ 등 모두 64리로 편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군정성책』에서 확인된 여수면의 군정은 상도 9리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처럼 순천부 소속 일부 면리에서만 전라좌수영 소속 군정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 Ⅲ. 전라좌수영 소속 순천부의 군정과 군관 편성

#### 1. 군정의 거주지와 구역의 종류

19세기 전라좌수영 소속 순천부의 군정은 몇 명이었을까? 순천부의 장정 가운데 16세 이상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군정의 점유율은 몇 퍼센트를 점유하였을까? 이러한 의문은 현전하는 『군정성책(軍丁成冊)』(1831)과 당시 순천부에서 거주하였던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추론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군정성책』의 작성 시기를 전후로 하여 순천부의 인구 정

송광 등 18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 25) 1914년에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 해촌면과 용두면이 통합되어 순천군 해룡면으로 개칭되었다. 그 후 1949년에 승주군 해룡면으로 편제되었다가 1995년에 순천시 해룡면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른다.
- 26)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전라좌수영 소속 군정이 순천부 소속 특정 면리에만 편성되었거나, 혹은 후대 사람들이 『軍丁成冊』을 분철하는 과정에서 면별 군정정보가 해체되었을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러나 현전하는 『군정성책』의 보존 상태나 면리별 군정에 대한 통계표 등을 살펴볼 때 임의로 자료가 해체되었다기보다 오히려 특정 면리, 예컨대 바닷가 연안에 입지하거나 혹은 바닷물이 내륙 연안까지 만입하는 물길과 관련하여 전라좌수영 소속 군정별 신역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보에 대해서는 18세기 중엽에 간행된 『호구총수』(1789)가 참고 된다. 다음 <표 2>는 18세기 순천부의 각 면별 인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2> 18세기 순천부의 호구

面	『여지도서』(1759)			『호구총수』(1789)			비고 (지명 변천)
	戶	男子	女子	戶	男子	女子	
蘇安面	978	1,265	1,379	823	1,232	1,289	
長平面	252	425	394	211	474	405	
東海村面	242	403	512	213	397	555	海村面
龍頭面	954	1,458	1,278	847	1,366	1,459	上道, 下道
栗村面	593	908	775	547	990	919	
召羅浦面	2,078	2,572	3,458	2,148	2,789	4,372	上道, 下道
三日浦面	741	1,036	1,220	829	1,288	1,387	
麗水面	3,297	3,899	4,853	2,637	3,570	2,903	上道, 下道, 西門內路, 西門外路
西上伊沙面	394	614	667	343	734	828	上沙面
松廣面	565	666	770	469	751	839	
雙巖面	697	1,309	1,001	623	1,114	1,008	
仕巖面	661	1,390	1,045	697	1,354	1,571	上道, 下道
南道里面	210	362	230	234	471	462	
下伊沙面	272	554	612	232	562	583	下沙面
別良面	775	1,122	1,194	694	1,374	1,098	
北西面	647	1,012	1,083	590	1,213	1,218	西面
月登面	296	599	649	270	564	601	
黃田面	547	689	884	497	925	804	
합계	14,199	18,593	23,276	13,669	22,075	24,255	

위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18세기 순천부의 인구수는 약 42,000~46,000여 명이고, 이 가운데 남자가 약 18,000~22,000여 명, 여자가 23,000~2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남자의 경우 군역 의무 대상자인 壯丁만을 검출할 경우 이 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순천부의 인구정보에 따르면, 약 4천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19세기 초 순천부의 인구 통계에 대한 자료가 현전하지 않아서 한계가 있으나, 당대 전라좌수영의 운영 전반을 정리해놓은 『호좌수영지』(1847)에 각 군읍별 방군수(放軍數)가 참고 된다. 대체로 조선시대 군사력의 기반은 모든 양인에게 부과하였던 군역이었고, 양인은 군역의 의무를 대납으로 면제받을 수 있었다. 특히 조선후기의 방군은 일명 格軍이

라 하여 수군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점유하였다.<sup>27)</sup> 19세기 중엽에 간행된 『호좌수영지』(1847)에 따르면, 전라좌수영에서 소속 군읍에 배정한 방군 수를 살펴보면, 순천 3,389명, 광양 755명, 낙안 349명, 보성 883명, 홍양 2,140명, 장흥 373명, 구례 274명, 순창 718명, 남원 431명, 남평 10명, 능주 722명, 동복 313명, 화순 258명, 운봉 11명, 창평 53명, 옥과 280명, 무주 48명, 곡성 464명, 임실 32명, 장수 42명, 광주 612명, 용담 10명, 담양 285명, 진안 17명, 나주 193명, 만경 15명, 영광 20명, 부안 15명, 무장 15명, 진도 20명, 흥덕 11명, 무안 15명, 장성 20명, 고창 7명, 태인 10명, 전주 11명, 함평 15명, 영암 20명 등 총 12,855명으로 파악된다.<sup>28)</sup> 이로써 보건대 18세기 말엽 순천부에서 거주 하였던 남자가 약 2만여 명이고, 19세기 초 전라좌수영에서 순천부에 배정한 방군이 약 3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다시 말해서 순천부에서 거주 하고 있던 남자 2만여 명 가운데 군정수는 약 3천 여 명으로 약 15%를 점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군정성책』(1831)에 등록되어 있는 전라좌수영 소속 순천부 4개 면의 군정 현황을 살펴보자. 다음은 순천부의 군정 수, 군정의 거주지 분포, 구역의 종류와 연령별 추이 등을 정리한 것이다.<sup>29)</sup>

- 
- 27) 송기중, 「17~18세기 전반 水軍役制의 운영과 변화-『兩南水軍變通節目』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43쪽.
- 28) 『湖左水營營誌』 「순천도호부」, 奎 12175, 1871,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湖左水營誌』, 古 9920-3, 1874년 경,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湖左水營誌』, 국역본, 전라좌수영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1992, 18-19쪽.
- 29) 순천부 4개 면의 군정현황은 軍丁案, 里(村)別, 面別 통계에 각각 오류가 발견되었다. 예컨대 여수면의 경우 군정안에 114명이 수록되어 있었으나, 里面의 통계는 144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도리면의 경우 군정안에 114명, 리별 통계 113명, 면 통계 14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해촌면의 경우 군정안 152명, 리별 146명, 면별 통계는 137명이었고, 별량면의 경우 군정안 390명, 리별 269명, 면별 350명 등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정황은 문서 작성자의 오류일 수도 있고, 실제 18~19세기 총액제와 공동납으로 인한 의도적인 오차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순천부 주도로 작성한 里(村) 통계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왜냐하면 군정안과 리별 통계를 비교한 결과 오차 범위가 적고, 실제 군정의 신역 변동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長山		1	1		2	1	3												8	
下林		4	2		1	1	1			1	1	2			1	1	1		16	
上林							1												1	
眞木		2					1			1		1		1	1	1	1		9	
鶴樓		3	2		1						2	1			1				11	
梧桐		2	1								1		1		1	1			5	
水徳		1																	1	
합계	1	66	63	10	12	13	31	4	1	2	11	18	12	3	2	14	9	8	1	277

위에 제시되어 있는 전라좌수영 소속 순천부 4개 면 군정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주목된다.

첫째, 전라좌수영 소속 순천부의 군정 편성이다. 순천부의 군정수는 여수면 144명, 도리면 113명, 해촌면 146명, 별량면 277명 등 총 680명으로 확인된다. 물론 현전하는 군정성책의 경우 일부 낙장 흔적이 있고, 또 4개 면에 기재되어 있는 군정안·리별·면별 통계표에서 오류가 확인되고 있지만, 현전하는 『군정성책』에는 2가지 군정 통계가 확인된다. 하나는 리(里)를 단위로 하여 군정을 파악한 것으로, 리 소속 군정안이 끝나는 부문에 「이상○명내(已上○名内)」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정의 신역별 통계가 정리되어 있다. 이것이 리를 단위로 한 1차 통계자료이다. 다른 하나는 해당 면 소속 군정안 말미에 기재되어 있는 면별 군정 통계이다. 역시 「도이상○명내(都已上○名内)」라 기재되어 있고, 해당 면 소속 군정 수가 신역별로 정리되어 있다. 이것이 2차 통계자료이다. 이 2가지 통계표를 토대로 군정안에 등재되어 있는 인원과 1~2차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통계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에 필자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리별 통계에 준하여 기술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순천부의 군정수는 총 680명으로 추산된다.

둘째, 순천부 군정의 신역별 구성이다. 순천부 군정의 신역별 인원을 파악한 결과 정병과 수군이 다수를 점유하고, 그 다음에 보미(保米)와 병장(兵匠), 봉군(烽軍)과 수용(需用) 순이다. 면별로는 ①여수면의 경우 ‘정병>수군>보미’, ②도리면의 경우 ‘정병>보미>병장’, ③해촌면의 경우 ‘수군>정병>봉군’, ④별량면의 경우 ‘정병>수군>보미>병장>수용’ 순으로 확인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19세기 전라좌수영 소속 순천부 군

정의 신역(군역)별 분포는 정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수군이다. 특히 별량면·여수면·도리면의 경우 정병이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예외적으로 해촌면의 경우 정병보다 수군이 많고, 봉군(烽軍)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순천부의 봉군의 경우 『승평지』 「봉수군」에 따르면, 총 138명으로 기재되어 있다.<sup>30)</sup> 이 가운데 해촌면의 봉수수가 22명으로 약 1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추이는 순천도 호부에 분포하였던 봉수의 입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순천에는 4기의 봉수가 분포하였다. 즉 돌산·성두(백아곶)·진례·성황당산으로, 이 가운데 해촌면 일대에 성황당산(일명 봉화산)이 입지하였다.<sup>31)</sup> 이런 까닭에 순천부의 북동쪽에 입지한 해촌면 거주민들이 봉수군으로 동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순천부 소속 군정의 신역별·연령별 추이다. 다음 <표3>은 좌수영 소속 군정의 신역별·개인별 연령을 합산한 다음 평균 나이를 산출한 결과이다.

<표 3> 순천부 군정의 신역별·연령별 추이

구분	여수면	도리면	해촌면	별량면
砲保	51	43	50	47
御保	47	42	43	41
烽軍	?	48	42	47
保米	43	48	52	47
需用	48	25	38	49
正兵	43	48	42	43
水軍	41		38	46
鎭軍	49		57	41
驍兵	52		42	43
諸員	42		35	57
新選		25	45	35

30)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순천시사』 문화·예술권, 도서출판 큰기획, 1997, 974-977쪽.

31) 『신증동국여지승람』 「순천부」에 “성황당산(城隍堂山) 봉수는 순천부의 동쪽 10리에 있으며, 동쪽으로 광양 건대산 봉수와 응하고, 서쪽으로 관문(官門)에 보고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 『대동여지도』 「성황봉대」 ; 『1872년 지방지도』 「성황봉대」.



工匠	39	30	40	43
兵匠	50	41	54	39
降資	52		33	43
民資			42	44
巡募			42	38
元樂			40	49
奴樂工			49	46
樂工				39
漕軍				40

위의 <표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순천부 군정의 나이는 평균 25~57세로 확인된다. 앞서 좌수영의 군정 가운데 다수를 점유하였던 정병의 평균 나이는 44세였고, 수군은 42세였다. 예외적으로 여수면 내동(內洞)의 수군 김유흥(金允亨)의 나이가 66세로 가장 고령자에 해당되었고, 여수면 자내(自內)의 수군 김휘지(金輝之)의 나이는 15세로 기재되어 가장 연소자에 해당되었다.

넷째, 19세기 순천부 군정의 거주지이다. 순천부 군정 680명을 리(촌)를 단위로 하여 지도에 표기하면 다음 <그림2·3>과 같다.



그림2. 해촌·도리·별량면 군정의 거주지



그림3. 여수면 소속 군정의 거주지

위의 <그림2·3>에 표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순천부 군정의 거주지는 여수면(9리), 도리면(9리), 해촌면(19리), 별량면(29리) 등으로, 이들 군정의 거주지를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도에 표기해 놓은 것이다. 도면에서 원형표시는 군정의 거주지인 리의 입지를 표기한 것이고, 실선은

순천만과 광양만의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만입된 상태를 그린 것이다. 이로써 보건대 순천부 군정의 거주지는 도리면·해촌면·별량면 등 내륙 연안과 여수면처럼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리고 바닷길의 초입에 해당하는 여수면의 동쪽 바닷가에 전라좌수영의 본산인 진남관이 위치하고 있다(앞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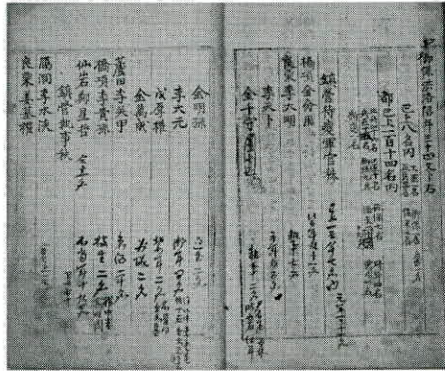


그림4. 순천부 도리면의 「진영대변군관질(鎭營待變軍官秩)」과 「진영집사질(鎭營執事秩)」

<그림3> 참조). 이렇듯 19세기 전라좌수영 소속 군정은 바닷가 연안이나 만조 때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유입되는 촌락 거주민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조선후기의 병력은 고립(雇立)을 통해 확보하였고, 특히 전라좌수영 군정 가운데 다수를 점유하였던 수군의 경우 ‘진하거민(鎭下居民)’을 대상으로 군안을 마련한 결과라 여겨진다.

## 2. 군관의 구성과 분정

전라좌수영 소속 순천부 군정안을 살펴보면, 군정은 크게 3단계로 관리되고 있었다. 1단계는 군정에 대한 개인 이력 사항, 즉 신역, 이름, 나이, 부친의 성명 등이 기재되고, 2단계는 리를 단위로 하여 군정 수, 리별·신역별로 정리되어 있다. 3단계는 해당 문서의 말미에 면별 통계가 제시되어 있고, 그 하단에 신역별 통계가 세분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군관안이 기재되어 있다.

현전하는 『군정성책』(1831)에는 순천부 4개 면에 편성되었던 군관과 집사 분정이 확인된다. 그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순천부 4개 면의 군관과 집사 분정

面	軍官	내용	비고 (통계 : 名·錢)
여수면	府軍官秩	鎮軍(1명), 禁軍(1명), 降資(6명), 鎮營待變軍官(4명), 元樂工(3명), 府執事(2명), 烽軍(21명), 選武軍官(4명), 需用(7명), 道長(1명), 保米(8명), 工匠(4명), 御保(3명), 校生(7명), 民資(6명), 騎兵(5명), 砲保(3명), 巡募(2명), 奴樂工(2명), 諸員(1명), 新撰(1명)	106명
도리면	鎮營待變軍官秩	橋項(2명), 良粟(7명), 蘆田(1명), 仙巖(1명)	11명
	鎮營執事秩	鴈淵(1명), 良粟(5명), 紅斗(1명)	7명
	府軍官秩	仙巖(2명), 良粟(3명)	5명
	選武軍官秩	紅斗(1명)	1명
	將官秩	紅斗(1명)	1명
	面當秩	山稅匠(1명, 2兩 2錢), 藥材保(1명, 2兩 2錢), 四色保(5명, 5兩 5錢), 保率(6명, 11兩 4錢), 紙匠保(2명, 4兩 4錢), 墨油軍(1명, 2兩 2錢), 藥材保(1명, 2兩 2錢), 松烟軍(1명, 2兩), 軍需保(1명, 2兩 7分), 將下軍(1명, 1兩)	19명 32兩 9錢 7분
해촌면	鎮營待變秩	大安(1명), 馬山(2명), 雪南(1명)	4명
	府執事秩	雪南(2명)	2명
	選武軍官	馬山(1명), 安晉(3명), 道長(1명)	6명
	校生秩	旺地(1명), 雪南(1명), 馬山(1명), 大安(2명), 鷹岩(1명), 邦月(1명) 禁軍(1명), 御軍(1명)	9명
	面當秩	山稅匠(1명, 2兩 2錢), 藥材保(1명, 2兩 2錢), 四色保(10명, 11兩), 保率(11명, 20兩 9錢), 紙匠保(1명, 2兩 2錢), 墨油軍(2명, 4兩 4錢), 軍需保(4명), 軍需保(4명, 8兩 2錢 8分), 將下軍(1명, 1兩)	32명 54兩 8分
별당면	鎮營待變軍官秩	大岡(3명), 竹田(2명), 金川(1명), 利勿(1명), 巨次(1명), 長山(2명)	10명
	府軍官秩	竹田(1명), 巨次(2명), 下林(1명), 眞木(1명), 未浦(1명), 內洞(1명), 長山(1명)	8명
	府執事秩	長山(4명), 大岡(9명), 鶴西(1명), 金川(1명), 竹田(7명), 開尔(1명), 巨次(1명), 未浦(3명), 松川(2명)	29명
	鎮營執事秩	長山(1명), 大岡(2명)	3명
	選武軍官	松亭(1명), 長山(5명)	6명
	面當秩	(문서 낙장), 紙匠保(2명, 4兩 4錢), 墨油軍(7명, 15兩 4錢), 軍需保(10명, 20兩 7錢)	76명 126兩 2錢

위의 <표 4>에서 보듯이, 1831년에 작성된 『군정성책』에는 각 면에 「부군관(府軍官)», 「진영대변군관(鎮營待變軍官)», 「선무군관(選武軍官)」,<sup>32)</sup> 「장관(將官)」 등이 분정되어 있고, 집사는 「진영집사(鎮營執事)」, 「부집

32) 선무군관은 평상시 집에서 생활하면서 대신 배 1필을 납부하였다. 옷감을 대신하여 錢으로 1필당 2량을 납부하였다. 선무군관의 복무연한은 15세부터 60세까지이다(『萬機要覽』).

사(府執事), 「교생(校生)」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여수면의 군관은 106명으로 가장 많고, 도리면 군관 18명, 해촌면 군관 12명, 별량면 군관 24명 등 총 160명이 확인된다. 또 집사의 경우, 도리면 7명, 해촌면 11명, 별량면 32명 등 50명으로 집계된다. 이러한 순천부 군관과 집사의 편성은 어느 정도의 위상이었는지 조금 후대의 자료이긴 하지만, 『여수지(麗水誌)』(1902)의 사례가 참고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사(水使) 1명, 우후(虞侯) 1명, 대솔군관(帶率軍官) 9명, 역학(譯學) 2명, 각색어변군관(各色禦邊軍官) 778명, 진무(鎭撫) 47명, 영리(營吏) 2명, 통인(通引) 30명, 궁사인(弓矢人) 70명, 사령(使令) 48명, 군뢰(軍牢) 70명, 기수(旗手) 50명, 취수(吹手) 50명, 별포군(別砲軍) 100명, 선직사공(船直沙工) 72명, 관노(官奴) 36명, 관비(官婢) 45명, 각색공장(各色工匠) 160명, 원포수(原砲手) 146명, 사부(射夫) 150명, 화포(火砲) 405개, 성정(城丁) 800명, 능노(能槽) 689명, 의승(義僧) 300명, 회부환미(會付還米) 9,184석(石) 4승(升) 4합(合) 1석(勺), 모환(牟還) 810석(石) 2두(斗) 1승(升) 7합(合) 7석(勺), 각 읍에서 해마다 납입하는 병휴전(兵休錢) 490냥, 각 읍에서 납부하는 1년의 방번전(防番錢) 9,630량, 주사(舟師)는 6읍에 소재하고, 군량 저축미가 33,673석 2두 9승, 각 읍의 이전미(移轉米) 990석, 주사와 읍진의 전병 60척, 기병대의 장졸 3,622명이다.<sup>33)</sup>

위의 기록은 1894년에 조선의 군사편제가 군기아문으로 일원화되고, 해양방비를 위해 설치되었던 모든 수군진영이 혁파되기 직전에 전라좌수영의 군관과 집사, 그리고 재정기반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전라좌수영 소속 대솔군관 9명과 각색어변군관 778명으로 확인된다. 즉 19세기 말엽 전라좌수영의 군관은 약 800여 명으로 확인되며, 이 가운데 순천부의 군관은 약 160여 명으로 추산된다.

#### IV. 맺음말

이 글은 19세기 전라좌수영 소속 순천부의 군정에 대한 사례연구이

33) 『麗水誌』 「前水營」.

다. 조선시대의 지방군은 물을 지키는 육수군(陸水軍)과 바다를 지키는 기선군(機船軍)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기선군이 곧 수군이다. 조선전기 전라도의 군정은 기선군 8,674명과 초공(梢工)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34)</sup> 이 가운데 좌도 기선군이 5,243명이고, 우도 기선군이 3,431명으로 편성되었다. 즉 전라좌수영의 군정이 약 60.4%를 점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시기 전라도에는 중선(中船) 87척 가운데 좌도에 55척(63.2%)이 배치되고, 맹선(孟船) 14척이 모두 좌도에만 배정되었다. 그런가하면 별선(別船) 40척 가운데 14척(35%)이 좌도에 주둔하였다.<sup>35)</sup> 이로써 보건대 전라도의 수군과 전선 배치에 있어서 좌수영이 우수영보다 조금 월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왜구 출몰로 인한 피해가 좌수영 일원에서 속출하였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지방군제는 속오군으로 재편되었다. 속오군의 편성은 감영·병영·수영을 중심으로 지역 방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조선 선조 26년(1593)에 충청·전라·경상도를 총괄하는 삼도수군통제영을 전라좌수영에 개설하였다. 이 때 이순신이 전라좌수사 겸 삼도수군통제사를 겸직하였다. 또 전라좌수영 산하 홍양(현 고흥)의 방답진을 주진으로 삼고, 그 예하에 사도진·여도진·녹도진·발포진 등 만호진을 배치하여 기존에 순천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전라좌수영의 수군방비가 홍양(현 고흥)을 중심으로 재배치하였다. 즉 조선 선조 33년(1600)에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김억추(金億秋)가 ‘완도→청산도→고금도→신지도→조약도’로 이어지는 바닷길에 왜구가 출몰하니, 이곳의 해방체제를 강화하자.’라고 상소하였다. 또 이듬해인 선조 34년(1601)에 전라도관찰사 이홍로(李弘老)가 ‘오도의 왜적이 손죽도·선산도를 경유하여 완도 가리포로 침범할 수 있으니 철저히 방비하자.’라고 보고하였다.

조선후기 서남해역의 해방체제(海防體制)가 대폭적으로 재정비된 것은 숙종 때이다. 17세기에 중앙관료들은 완도 일대로 침입한 왜구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이 때 논의의 쟁점은 강진의 고금도와 청산도에 수군진 설치 여부였다. 즉 병조판서 민유중(閔維重)이 ‘고금도는 땅이 크니 침사

34) 『세종실록』지리지, 전라도 기선군.

35) 정성일, 위의 논문, 30쪽.

를 설치하고, 청산도는 조금 작으니 만호를 설치하되, 각 고을 소속 전선 2척씩을 배치해주고, 능로군(能櫓軍)과 사포수(射砲手)를 모두 해당 섬 주민들로 충당한다면 수군 배정으로 인한 폐단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리하여 고금도 덕동에 첨사진이 설치되어 조약도(현 약산도)·평일도·생일도 등지를 관장하고, 또 외양에 입지하고 있던 청산도에 별장진이 설치되었다. 그 결과 17세기 말에 전라좌수영의 수군편제는 5관(순천·낙안·보성·광양·홍양) 5포(방담진·사도진·여도진·발포진·녹도진)를 관할하였다.

19세기 전라좌수영 소속 순천부의 군정은 여수면 144명, 도리면 113명, 해촌면 146명, 별량면 277명 등 총 680명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순천부 군정을 지역별로 구분해 본 결과 정병(正兵)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수군(水軍)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특히 해촌면의 경우 유일하게 정병보다 수군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고, 순천부에서 봉군수가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어 주목되었다. 이로써 보건대 순천부 군정의 거주지는 주로 순천만과 광양만의 연안에 입지하거나, 혹은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만입하는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전라좌수영 소속 군정 가운데 다수를 점유하였던 수군의 경우 '진하거민(鎭下居民)'을 대상으로 군안을 마련하였으며, 또 봉화산 아래 거주하였던 주민들의 경우 봉수군에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 순천부 군정의 연령은 25세에서 57세까지 분포하였으며, 가장 다수를 점유하였던 정병의 평균 나이는 44세였고, 수군은 42세였다. 이러한 순천부의 군정은 19세기 말엽 갑오경장 때 군무아문으로 일원화되면서 모두 혁파되었다.

## 참 고 문 헌

-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大東輿地圖』, 『昇平誌』, 『戶口總數』, 『賦役實總』, 『萬機要覽』,  
『軍丁成冊』, 『湖左水營誌』, 『全羅左水營啓錄』(奎15097, 1850~1892)  
『全羅左水營及光陽縣所在船價米今庚申冬等磨勘成冊』(奎16273, 1854)  
『全羅左水營及光陽縣所在船價米今庚申冬等磨勘成冊』(奎16272, 1859)  
『全羅左水營船價米成冊』(奎16275, 1859)  
『全羅左水營所在休番錢木布今己未冬等磨勘成冊』(奎16516, 1859)  
『全羅左水營別砲衛新設節目』(奎18987, 1870), 『湖南邑誌』(奎12175, 1871)  
『全羅左水營來關錄』(奎15124, 1875)  
『全羅左水營所在錢穀布木重記蓄積磨勘成冊』(奎16282, 1883)  
『全羅左水營重記蓄積磨勘成冊』(奎16911, 1886), 『湖南營誌』(奎12189, 1895)  
『湖南鎮誌』(奎12188, 1895), 『呂水郡邑誌』(奎10803, 奎1899)  
『麗水誌』(1900·1902, 奎10794·奎10793)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선시대 수군진 조사』 2, 전라좌수영 편, 2014.  
김경옥, 『朝鮮後期 島嶼研究』, 해안, 2004.  
김정호·이명헌 역, 『全南의 옛 鎭·營』, 향토문화진흥원, 1995.  
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여수시, 『여수전라좌수영성지』, 2011.  
문영구, 『全羅左水營研究』, 대한건설진흥회, 1992.  
순천대박물관, 『전라좌수영의 역사와 문화』, 1993.  
순천대박물관·여수시, 『全羅左水營城址』, 2002.  
양은용, 『이충무공과 전라좌수영 논문자료집』, 거북선대축제보존회, 1998.  
여수해양문화연구소·한일관계사학회,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그리고 거북선』,  
경인문화사, 2011.  
여천시, 『전라좌수영과 임진왜란 義僧水軍의 활동』, 1996.

- 김경옥, 「고금도의 역사문화적 배경」, 『도서문화』 13,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5.  
\_\_\_\_\_, 「조선후기 청산도진의 설치와 재정구조」, 『전남사학』 22, 전남사학회, 2004.  
김덕진,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군관의 출신과 역할」, 『해양문화연구』 1, 전남  
대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08.

- 김진돈, 「진남관과 좌수영대첩비」, 『전라금석문연구』 9, 전라금석문연구회, 2007.
- 김행범·우승환·이석배, 「근대기 전라좌수영성의 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도지이용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52,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12.
- 박경식, 「이순신의 보상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제도적 보상을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논총』 4-1,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2005.
- 변동명, 「朝鮮時代 突山島 防踏鎭의 설치와 그 구조」, 『韓國史學報』 27, 고려사학회, 2007.
- \_\_\_\_\_, 「조선시대의 突山鎭과 古突山鎭」, 『歷史學報』 198, 역사학회, 2008.
- \_\_\_\_\_, 「朝鮮時期 麗水の 石堡와 石(堡)倉」, 『역사학연구』 33, 호남사학회, 2008.
- \_\_\_\_\_, 「1592년 전라좌수영의 거북선 건조」, 『해양문화연구』 4, 전남대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0.
- 송기중, 「17~18세기 전반 水軍役制의 운영과 변화-『兩南水軍變通節目』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1.
- 송은일,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의 軍船 材木 관리와 조달」, 『해양문화연구』 4, 전남대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2010.
- \_\_\_\_\_, 「조선시대 전라좌수영의 將軍島城 축조과정 및 배경과 李良將軍」, 『역사학연구』 54, 호남사학회, 2014.
- 신운호, 「임진왜란 직후 해상방위와 통제영-居營日記를 중심으로」, 『해양문화연구』 10, 전남대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 오미나, 「조선후반기의 통제영 수군조련도 연구-국립진주박물관 소장 통제영 수군조련도 병풍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281, 한국미술사학회.
- 오정훈, 「전라 좌수영의 배치특성에 관한 연구」, 순천대 석사학위논문, 2002.
- 이해준·김경옥, 「청산도의 역사문화적 배경」, 『도서문화』 9,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91.
- 이현수, 「조선초기 軍丁의 定額化 과정과 軍額 推移」, 『조선시대사학보』 26, 조선시대사학회, 2003.
- 장원주·최형국, 「18세기末 전라도 水軍戰法 變化의 특성-전라우수영 『戰陣圖帖』과 전라좌수영 『水操笏』을 중심으로」, 『武道研究所誌』 22-1, 용인대 무도연구소, 2011.
- 정성일, 「전라우수영과 남해방어」, 『임진왜란과 전라좌수영 그리고 거북선』, 경인문화사, 2011.
- 차용걸, 「군사제도」, 『한국사론』 4, 국사편찬위원회, 1976.



Abstract

Gunjeong and Gungwan of Jeolla Jwasuyung  
through a collection entitled *Gunjeongseongchaek*  
in 1831 : The Case of Suncheon-bu

Kim, Gyung-Ok\*

It was the 15th century that provincial navy commanders(水軍節度使) were dispatched to Suncheon-bu of Jeollado. During that period, *Wakou* (倭寇), Japanese raiders, invaded the sea sectors of Suncheon(順天), causing damage day by day. The *Wakou* during that time appeared in the sea sectors of Joseon along a bi-forked sea route. The one is a sea route from Tsushima Island(對馬島) to Gocho Island(孤草島) via Geoje Island(巨濟島), and the other one is a sea route from Odo Island(五島) in Japan to Garipo(currently Wando Island) via Sonjuk Island(損竹島) and Sunsang Island(仙山島). Due to this, Jeolla Province was not be able to be free from long-term wars including the Eulmyo Japanese invasion in 1555 (10th year of Myoungjong in Joseon Dynasty), Jeonghae Japanese invasion in 1587 (20th year of Seonjo in Joseon Dynasty), the Imjin war in 1592, and Jungyujaeran (the 2nd Japanese war).

Since the Imjin war in 1592, the sea defense system of Jeollado Province was substantially reorganized in 1681 (7th year of Sukjong of Joseon Dynasty). At that time, the navy of Jeolla Province was

---

\* HK Professor, Institution for Marine & Island Cultures, Mokpo National University.

reorganized into Jwado (left) and Udo (right) around suyung(水營), navy commanders, in which their subordinate organizations, Cheomsa(僉使), Manho(萬戶), and Byeljang(別將) were dispatched, and the jurisdictional areas are from Wido Island(蝸島) in Gusan to Odongpo(梧桐浦) in Yeosu. Among them, Jeolla Jwasuyung had control over 5 gwans (i.e. Suncheon, Nakan, Boseong, Gwangyang, and Heungyang), and 5 pos (i.e. Bangdapjin, Sadojin, Yeodojin, Balpojin, and Nokdojin). Jeolla Jwasuyung during 19th century had control over 6 gwans and 7 pos after Heoryongpojin and Godolsanjin in Jangheung were restored.

As analysis data, this paper used a collection entitled *Gunjeongseongbaek* (『軍丁成冊』) written in 1831. This data contain a list of military administrators and military officers of 4 myeons of Suncheon-bu(順天府) belonging to Jeolla Jwasuyung. Namely, the military administrators of 4 myeons of Suncheon bu consisted of navy, rice keepers, petty officers, signal-fire soldiers, and collectors, as well as Jeongbyung(正兵). Among them, the number of Jeongbyeong was highest, and the average age of Jeongbyeong was 44 years old, whereas the average age of navy was 31 years old. Nevertheless, it seems that there was no big change in the number of military administrators belonging to Jeolla Jwasuyung in the 19th century,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s.

For example, whereas 136 military administrators were registered in a record entitled *Yejidoseo* (『輿地圖書』) produ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18th century for the number of them in Yeosu-myeon(呂水面), Suncheon-bu, 144 military administrators were registered in a record entitled *Gunjeongseongbaek* in the 19th century for the number of them in the same area. The navy organizations of Jeolla Jwasuyung were unified into Ministry of War(軍務衙門) in 1895 (32nd year of Gojong of Joseon Dynasty), which led to reformation of all suyung(水營) and its subordinate navy organizations.

Key Words : Jeolla Jwasuyung(全羅左水營), Suncheon-bu(順天府), Yeosu-myeon(呂水面),  
*Gunjeongeongchaek*(軍丁成冊), Gunjeong(軍丁: Military administrators),  
Gungwan(軍官: Military officers), Navy forces(水軍).

교신 : 김경옥 58645 전남 목포시 송림로 41번길 11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도서관화연구원  
(E-mail : gokim@mokpo.ac.kr)

논문투고일 2016. 04. 30.

심사완료일 2016. 06. 10.

게재확정일 2016. 06. 13.

